

# 대학 구조조정과 기초학문: 종속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노 정 혜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 1.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체제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을 개혁하고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양대 추진목표는 고급 과학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과, 대학의 '서열 체제'를 혁신함으로써 고질적인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4차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21세기 사회에 대비하여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창조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명문대학을 단기간에 집중 육성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이러한 체제로 개편하고, 소수의 대학들을 선별하여 세계 수준의 대학원으로 육성하려는 시간표를 짜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학들을 (대학원중점)연구중심대학과 (학부중점)교육중심대학으로 대별하고, 교육중심대학의 경우 지역대학으로서 해당지역 고졸자 중 성적우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여 교육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의 학부과정을 대폭 줄이고, 교육중심대학의 경우는 대학원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정원조

정이 선행될 것이다. 또한 ‘서열’ 타파를 통해서만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울대학을 비롯한 소위 명문대학과 인기학과들의 학부과정을 축소 또는 폐지시킴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길만이 통제불능의 사교육비 문제와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처방이 과연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풀고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우려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대학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변화들과,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 학사제도 모형들이 대학과 기초학문의 존속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구조조정 방안 :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1978년 이후부터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목표를 세우고 있던 차에 교육부의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올해 8월 초 이를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구조조정 실무위원회가 작성하여 제시한 안에 의하면,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각계의 비판을 외면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며, 이는 절대로 상황논리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 대학원·학부 교육의 유기적 연

관성, 학생의 선택권 강화, 그리고 학부·대학원을 망라한 연구역량의 질적 고양 등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본부가 제시한 구조조정안 중 학사조직과 학생선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사조직

학사조직은 크게 학부대학과 대학, 대학원으로 분류한다. ‘학부대학’은 학과가 없이 모든 학사과정 학생을 큰 입학단위로 선발하고 교육하는 조직이다. 1, 2학년에서는 핵심영역(core curriculum)의 교육과 전공탐색 교육을 하고, 3학년 때 크게 분류된 전공영역을 선택하고 전공이수를 하여 학사가 된다. 학부대학의 기본정신은 수요자 중심 원칙으로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학부대학 모델은 외국의 특정한 사례를 본뜬 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자체개발 모델이다.

‘대학’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학부대학에 통합되기 어려운 분야의 학사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조직이다. 학생선발 방법상의 특수성과 학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학사과정을 세부전공별로 선발하여 4년완성 위주의 교육을 하는 조직이다(음대, 미대, 간호대 등이 이에 해당).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둔다. 일반대학원은 기초학문 분야(학사과정이 학부대학에 통합된 학문 분야)의 교육과 연구단위로서 학술펙위(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조직이며, 전문대학원은 학문의 성격상 고등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학사과정을 일부 포함하여 대학원까지 연계되는(2-4제, 4-2제, 4-3제 등) 학·석사 통합과정으로서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학술펙위도 수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 ② 학생선발 제도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개발하여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학생선발 제도를 개발한다(고교장 추천입학 제도의 확대 실시, 2002년 이후 무시험 전형제도 전면 실시). 대학원 과정의 경우 일정 비율을 타 대학 졸업생에게 할애한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을 통해 학문의 선진화, 고급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 확대, 사교육비 절감 및 전인적 인재 배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안의 골자이다.

## 3. 현재의 구조조정 방안이 기초학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본부의 구조조정안이 가시화되면서 대학 내의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와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뿐 아니라 농업생명과학대, 경영대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상기한 구조조정이 국내 대학 전체의 학사과정 교육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서울대 구조조정안이 서울대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교육과 기초학문 연구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학사과정 중도에 진입하는 전문대학원 제도(2-4제도)

앞서 얘기한 대로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달리 “고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사조직으로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러한 전문대학원의 범주에는 법학,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사범, 행정, 환경, 보건대학원 등이 속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에 진입하는 시기는 학부 2학년 수료 후가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진입 시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으나, 의학 계열을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 경제적, 법적(병역 문제) 이유 등으로 교육연한을 현재보다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통상 4년제로 운영되는 대학내 모든 분야의 교육을 허리에서 꺾어 버리는 조치로서 일반 대학교육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 위험과 허구성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상 이들 전문대학원에 속하는 과정 중 상당부분들이(법학, 의학 계열 등) 소위 인기 대학원이 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당함을 타하기 위해 앞서, 이러한 전문대학원 제도가 대학의 학부과정에 함께 섞여 있을 경우, 이들 인기 전문대학원에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입시체제가 학부 1, 2학년 과정중에 가동될 것이며, 이 경우 기초학문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고, 인기 직업 전문대학원의 하부 교양과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나.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타교 출신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자교 출신 학생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타대학의 인기 전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학사과정 중도에 휴학을 하게 되는 사태가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과 연구 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 중심대학의 연구인력도 2년의 교양과정 이후 대거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잔류 학생들은 사기 저하와 교육과정의 부실 등으로 인해 대학원 과정을 받쳐줄 수 없게 된다. 학문 분야의 최소인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도 역시 전국적인 학사과정 학생 재분배의 열풍을 부채질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인기 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 대학교육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다. 2년의 교양과정 후에 전공 교육과정과 전문대학원에 진입하는 제도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교육연수로 볼 때는 예과 과정이 별도의 모집단위로 관리되는 일본의 현재 교육체제와 유사하나,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이나 운영방법의 면에서는 이와 다르다. 구태여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2년의 예과 과정을 마치고 문학부, 법학부, 의학부 또는 이공학부 등으로 진입하던 과거 경성제국대학 시절의 학사제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일반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진입하는 데 반하여 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 2년 수료자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의 형평과 일반성에도 어긋난다.

마. 학부 2학년을 교양과정으로 수료한 학생이 전문대학원에 진입할 경우, 특히 고도의 전문분야 훈련이 필요한 의학 계열의 경우, 교양과정의 교육내용이 전문분야의 심화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학력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재처럼 예과 과정을 별도로 모집하여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창의적 기초학문에 접할 기회가 적은 데서 비롯되는 제한점을 의학

계열 연구자들 자신도 지적하고 있는데, 하물며 표준화되지 않은 ('폭 넓은') 교양과정 2년 후에 4년의 교육만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전문인을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결과적으로 2년의 교양과정후 전문대학원과 일반 학부대학의 전공과정으로 진입하는 제도에서는 일반 학부대학의 전공교육은 부실화, 하향화될 수밖에 없으며, 고급 연구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인 연구중심대학의 교육 목표도 희생될 수 밖에 없고, 더 근본적으로 전국의 대학교육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 2) 초대형 학부제

학부대학이라는 용어는 100인 100색의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대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학부과정(undergraduate) 전체를 하나의 college로 하여 학부에서 학과는 없애고 전공만 남겨 두며, 전공선택은 3학년 때 대전공(예컨대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University college라고 부른다. 이 제도의 핵심은 수요자로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공교육보다는 폭 넓은 교양교육을 학부과정 동안 시행한다는 취지다. 이는 마치 심화된 전공교육이 전공간의 벽을 강화하고 좁은 시야의 인력을 배출한다는 전제와도 통한다. 또한 학과(department)라는 단위가 세계 어느 대학에서나 특정학문 분야의 핵심 학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벽을 만든다는 이유에서 타파되어야 할 대상 1호로 간주하고 있는 발상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심화된 전공교육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의 교육을 두고 볼 때, 대학 졸업자

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은 대부분 산업인력과 연구인력으로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 분야의 대학들은 학부과정 동안 내실있는 전공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충실한 실험실습이 포함된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단과대학 전체를 단일학부 체제로 하는 학부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1, 2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전공을 골고루 폭 넓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 실험실습 시간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전공교육도 그만큼 부실화되는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단과대학 차원의 단일학부제도 이룰진대, 대학교 전체의 단일학부 운영이 얼마나 더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장기적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비인기 전공들의 학문적 도태,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에 따른 학내 생활의 무질서 및 학부 학생에 대한 방치 등 소규모의 학부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학부를 당장에 시행한다는 것은 위태하기 그지 없다.

현재 선진국들의 대학 학사제도는 학부과정에서 점점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과거 '60, '70년대의 문화혁명 또는 신문화운동이 초래한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바로잡아 가고 있다. 강화된 교육과정이란 교과목의 수를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니며,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학부과정에서 교육하는 질적 강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폭 넓

은 교양을 강조하는 학풍 속에서 3, 4학년에 들어가서야 겨우 실험실습을 통한 전공분야 연구의 자질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대학 4년 동안 훈련하지 못함으로써 낭비되는 국력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보다 더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에 자유와 유연성을 부여하는 더욱 확실한 길이다.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전공을 정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대학 2년간 혹은 전공 과정에 걸쳐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제한일 수밖에 없다. 단일학부로 입학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학부생들 70% 이상이 이미 입학 당시 마음 먹었던 전공을 3학년 때 선택하여 공부한다는 사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나머지 30%의 학생을 염두에 두고 모든 기준을 다시 설정하려는 현재의 시도를 무색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려 한다면,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일찍 전공을 정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을 3학년까지 붙들어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특정한 전공을 원하지 않고 ‘과학과 사회’, ‘과학과 문화’ 등 넓은 분야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특정한 전공선택을 유보할 수도 있겠으나, 전공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열린’ 교육이라는 개념은 위험한 발상이다. 교실이 없어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것을 ‘열린’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

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구태여 University College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대학의 소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다 전공을 결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이며, 정규적인 학사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 형태의 조직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전공선택을 대전공 정도의 종합학문으로 국한하여 학부과정 4년 동안 거의 교양교육 수준에 그치는 교육을 하는 경우도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학부과정 전공 프로그램의 수는 거의 100개 정도 또는 그 이상이며, 전공선택을 하고 심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학부 1~2학년중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에 배치되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 4. 바람직한 대학개혁의 방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의 토대가 튼튼해야 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기초학문 발전과 전문가 양성의 터전임을 도외시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부상하는 대학이 있기를 바라는 바람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안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바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은, 특히 독단적 집단이기주의에 안주

해 있는 교수 사회는, 제도적·조직적 충격을 받지 않으면 바뀌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제 아래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만들어 내리는 혁명적인 사고를 깔고 있다. 고질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하여 상식을 벗어난 충격요법을 곧 개혁으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촌시대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학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험심이 아니다. 틀이 깨져야만 내용이 바뀐다는 믿음으로, 깨지 말아야 할 울타리와 토대들을 모조리 타파하려는 맹목적인 추진력도 아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세계 수준의 대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의 총알로 해결하려는 사행심도 아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여 돈과 효율성, 수요자의 만족 등을 대학의 최대가치로 떠받드는 맹목적 자본주의도 아니다. 기존의 울타리와 토대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짠 전공의 테두리 안에 적절한 인도 없이 선택의 자유만을 구가하도록 내던져진 우리의 학생들은 과연 어떠한 인재로 길러질 것인가? 요즘 같이 모든 것이 요동하고 바뀌는 시대에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지키고 가꾸어가는 곳곳함을 가진 대학에서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성숙한 인재와 뿌리깊은 기초학문이 배양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다. ■

---

노정해/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컨신 대학(매디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스컨신 대학 Mc Ardle 암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97년부터 자연과학대학 부학장(학생담당)을 맡고 있다.